

## 왕따 소녀 위해 함께 등굣길 나선 대통령



▲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소녀(가운데)를 위해 함께 등굣길에 나선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왼쪽). 사진=randrife.co.uk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다운증후군 소녀를 위해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은 지난 7일 고스티바르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엠블라 아테미(11)의 집을 찾았다. 엠블라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엠블라와 같은 반 학생들의 부모는 “엠블라가 때때로 공격성을 드러내며 수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했고,

불평과 불만이 이어지자 교사는 엠블라를 다른 학생들과 격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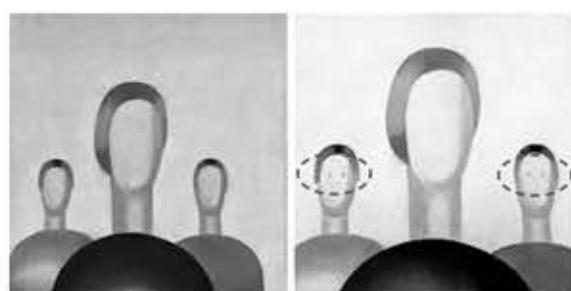
엠블라는 지난 1일부터 격리된 교실에 홀로 앉아 있어야 했다. 이를 알게 된 엠블라의 부모는 딸의 피해 사실을 지역 교육 당국 홈페이지에 알렸는데, 우연히 이를 알게 된 펜다로프스키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실은 “펜다로프스키 대통령이 엠블라 및 가족과 함께 가족이 매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펜다로프스키 대통령은 지난 7일 엠블라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함께 걸어간 후 엠블라가 교문에 들어서자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특히 발달장애 아동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과 운동장에서도 평등하게 환영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펜다로프스키 대통령은 엠블라의 부모가 딸과 같은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고가 미술품에 낙서한 경비원



▲ 원본(왼쪽)과 낙서(오른쪽) 원 안가 된 그림. 사진=zerkalojo

러시아의 유명 미술관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고가의 예술 작품에 낙서한 사실이 들통나 해고됐다.

1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카테린부르크의 옐친 센터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 2명이 전시 중인 작품 하나가 ‘이상하다’며 미술관 직원을 찾았다.

문제가 발생한 작품은 러시아 출신의 유명 화가인 안나 레포르스카야(1900~1982)의 ‘Three Figures’라는 작품이었다. 본래 이 작품은 눈·코·입이 없는 얼굴 3개가 나란히 그려져 있는데, 관람객이 발견했을 당시에

는 얼굴에 눈으로 추정되는 작은 동그라미들이 그려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당시 경비 사설업체에서 파견된 한 경비원이 근무를 서던 중 볼펜을 이용해 작품에 낙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작품의 정확한 가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품에 든 보험만 약 1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관 측 전문가는 “불행 중 다행히 펜을 세게 누르지 않고 낙서를 했기 때문에, 그림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았다. 페인트 레이어가 약간 훼손되기는 했다.”면서 “복원 작업에는 25만 루블(약 3,500달러)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비업체는 곧장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문제의 경비원은 옐친 센터 미술관에 출근한 지 첫날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품 훼손의 뚜렷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술관과 경비업체 측은 “지루함에서 온 단순 장난인 것 같다.”고 짐작했다.

## 영국으로 구조 요청한 캐나다 여성

We were contacted on Wednesday on our online Live

Durham Constabulary @DurhamPolice

Our quick-thinking control room team helped save a woman 3,000 miles away after an intruder got into her home.



▲ 사진=twitter(DRPS)

캐나다 온타리오 주 더럼에 사는 한 여성이 실수로 대서양 건너 약 5,400km나 떨어진 영국 더럼 경찰서에 구조 신고했다가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연이 화제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에 벌어졌다. 당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자택 안에 누군가 몰래 침입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관할인 더럼 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여성은 ‘도움이 필요하다. 남자가 들어왔다. 집안에 있다’라는 SOS 신고 글을 남긴 직후 연락이 끊겼다. 문제는 당황한 여성의 같은 이름의 잉글랜드 더럼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다. 온라인 검색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나라 같은 이름의 경찰서에 잘못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잉글랜드 더럼 경찰서의 대처는 놀라웠다. 곧바로 다른 나라에서 온 신고라는 것을 알아챈 근무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더럼 경찰서에 연락해 신고 내용을 알렸다. 이후 캐나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여성이 영국 더럼 경찰서에 신고한 지 30분 만에 여성의 집에서 35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불법 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 더럼 경찰 측은 “해당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결국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됐다”면서 “신고한 피해 여성은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 Thank You Dental!

Implant Orthodontic General Dentistry

### Special 1

**Free Consultation**

Digital panoramic x-ray & 3D CT

### Special 2

**Implant \$2,000 \$1,200**

환자 맞춤 이식 및 관리  
뼈이식시 자가혈 치료 무료  
(Reg. \$500)



Loving Dentistry You Can Trust

##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Dental에서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CT 구비, 자가혈 CGF 치료, 최상의 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풍부한 임상 경력, 임플란트 전문, 일반치과, 교정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함께 일하는 원스톱 종합 치과

**OC (714) 772-5656**

1721 W. Katella Ave #A, Anaheim, CA 92804

한인 담당  
매니저 Annie

임플란트, 구강외과  
교정 전문의  
일반 치과  
치위생사

Dr. Michael Ahn  
Dr. Dan Nguyen  
Dr. Young Kim, Dr. Hoang Viet  
Kelly Nguyen, Mindy Pham

각종 보험 (PPO)  
메디칼 환영